

‘정치검찰대책단’ 검찰·당국 비협조 ‘맹공’

민형배·주철현·박균택 등 일제히 SNS 소통 나서
 閱 “의혹 규명 조직적 방해…특검으로 돌파해야”
 朱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의혹의 불씨만 키울 뿐”
 朴 “검찰, 사법정의 바로 잡는 본래 역할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사 특별대책단’에 포함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SNS를 통해 검찰과 교정 당국의 비협조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검찰 특별대책단’ 단장으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접견을 위해 수원교도소를 향의 방문했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교정당국은 전혀 협조하

지 않는다. 수원지검 사건조사 의혹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 특검으로 돌파해야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검으로 간다면 대상은 수원지검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요청한 자료 제출하고 대책단의 진상 규명에 잘 협조하기 바란다.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대책단에서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여수)도 같은 날 “미리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과 구치소장 면담을 공식 신청했지만 예정 시

각이 임박해서야 접견도, 구치소장 면담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이 불법 사건 조사는 물론, 이를 규명하려는 특별대책단의 활동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불허한 이유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

할 수 있는 추가 피의 사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자료 제출 거부와 접견 불허 등 윤석열 검찰과 법무부의 진상 규명 방해 행위는 의혹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며 “특별대책단이 활동을 전개할수록 검찰이 제야당 대표에게 중범죄를 씌우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밝혔다.
 ‘정치검찰 특별대책단’ 간사인 박균택 국회의원 당선자(광주 광산갑)도 이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접견과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수원교도소를 향의 방문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과정에 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당선자는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접견이 거부됐다”면서 “수원구치소가 접견 불허 사유를 ‘검찰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기가 막힌 내용은 더 있다”며 “국회에서 열흘도 전 수원구치소가 준비해야 할 자료를 포함해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수원구치소는 그동안 법무부로부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연락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자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자가 법인”이라며 “공무원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윤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첫 국회의장, 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4파전

박지원 “지금은 나설 때 아니라고 결론” 불출마

22대 국회를 2년 간 대표할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8일 오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자와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4월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 불신임권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공약했다.

5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특히 민생 분야 정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각 당의 대표, 원내 대표 등과 상시 소통하고 원내 주례회동과 수시 비공개 회동을 실시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협치 의지’도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오후까지 많은 분의 고견을 들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장 경선을 치른다. 과반을 확보한 당내 경선 승리자가 사실상 의장에 내정된다. /연합뉴스

巨野,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군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윤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
 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진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저렴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제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힘, 5·18기념식 3년 연속 참석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 약 100여명이 오는 18일 오전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어 올해를 포함하면 3년 연속 참석이다.
 8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지도부는

기념식 참석 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원외 위원장들과 간담회 등 추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광주에서 별도의 현장 워크숍을 연다. /김진수기자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센터 조성 지원

행안부 150억 투입…8월 중 3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는 8일 “인구감소지역에 출산·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88곳과 인

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교부세 110억원, 지방비 2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 등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는 지원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6월 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면, 현장, 발표 등 3차에 걸쳐 심사하고 8월 안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현황을 반영해 스톨웨딩 공간 대여, 산모 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 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통합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숄저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